

② 골조 재료

인삼해가림 시설의 기둥 재료는 대부분 인근의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작나와 참나무가 많이 사용되었고 낙엽송도 사용되고 있었다. 기둥용 목재의 규격은 직경이 8cm 이상 되는 것은 반절하여 사용하고 그 이하는 원형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까래의 재료는 보통 직경이 2.5~3cm 이고 길이가 2.5m 내외인 나무 가지를 아치형으로 구부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훈춘진의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폭이 4cm 이고 두께가 1cm 인 대나무를 서까래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리는 설치하는 곳도 있었으나 설치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으며 도리는 보통 직경 5~6cm의 통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다. 후주연결식의 해가림시설에서는 낙엽송의 각목을 사용하고 있었다. 골조재의 설치는 먼저 인력으로 기둥을 땅속에 박아 세우고 양 기둥을 도리로 연결하고 그 위에 서까래를 얹어 놓는 순서로 설치하였는데 기둥과 서까래 등의 연결은 못을 박거나 철사, 끈 등으로 묶어서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표 34. 골조의 재료 및 규격

기 둥(cm)		서까래		도 리		재 료	연결방법
직경	길 이	직경	길이	직경	길이		
\varnothing 8cm 이상 반절 \varnothing 8cm 이하	130 ~ 150	\varnothing 2.5~3가지목 4x1(대나무)	2.5 ~ 2.8	\varnothing 5~6	180~ 200	참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못, 철사, 끈 등으로 묶어 고정



(골조재료 및 고정방법)



(차광비닐을 그물망으로 고정)

그림 7. 인삼 재배 해가림 시설의 골조

③ 피복재료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의 인삼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인삼해가림 시설의 피복재료는 두께 0.08mm, 폭 2.5m의 청색비닐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온기에는 그 위에 검정색의 차광막을 씌워 조도를 조절하여 주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차광막을 사용하는 대신에 진흙탕 물을 뿌려 햇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비닐은 바람에 날려 가지 않도록 상부를 그물망이나 끈으로 묶어 고정하여 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농가는 평지붕의 비닐 위에 옥수수 대를 올려 놓고 고정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바람에 의한 피해는 없다고 한다.